

제목: "전통을 버리라"

말씀: 마태복음 15장 13-2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항의 합니다. 그 때에 예수님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버려야 할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1)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_\_\_\_\_ 생각하라
- 2) \_\_\_\_\_이 되지 말라
- 3) \_\_\_\_\_이 나오지 않도록 경건하라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2월 7일)	
십일조	
주일	
감사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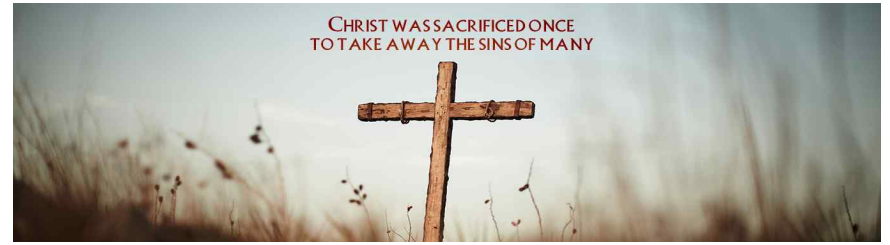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사순절 첫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Call to Worship ..... President
- \* 찬양 ..... 다같이  
Praise .....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 다같이  
Prayer ..... All Together
- 성경말씀 ..... 마태복음 15장 13-20절 ..... 설교자  
Scripture Reading ..... Matthew 15: 13-20 신약 25 페이지 ..... President
- 말씀 ..... "전통을 버리라" ..... 김성민 목사  
Message ..... Do not follow wrong traditions ..... Rev. Kim
- 특별찬양 ..... 김성정 전도사  
Special Praise ..... Pastor Faith Kim
- 헌금/기도 .....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 All Together
- 광고/환영 ..... 인도자  
Announcement .....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 다같이  
Praise and Prayer ..... Lord Here I am ..... All Together
- \* 축도 ..... 설교자  
Benediction .....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 담임목사 컬럼 (정전)

지난주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교회에 가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을 있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소식들이 들렸다. 눈 때문에 받은 어려움들이다. 그중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넓은 지역에 정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보통 정전은 몇 시간이면 해결이 되어 다시 불이 들어왔지만 어떤 지역은 7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가정은 불이 들어오지 않아 샤워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먹을 것을 만들지 못해서 고생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샤워 하도록 오픈(Open) 할 수도 없는 형편 아닌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보다 더 큰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음식점과 마켓이 당하는 어려움이다.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가게에는 냉장고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럿 인 것이 분명한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그 음식들을 다 버려야하기 때문이다. 돈으로 따지면 아마 수 천불정도는 적은 손해일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낙심이 될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텐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허덕이게 생겼다. 그러고 나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좋아 할 수 없었다. 정말 다행이라고 말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지만 한편으로는 내 집과 내 가게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는 것조차도 미안하고 괴로웠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은 몇 주 전 내가 일하는 가게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던 큰 나무가 쓰러지며 전깃줄을 망가트려 거의 하루 동안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 때 냉장고와 냉동고 안에 있는 음식들이 상할 것 같아 발을 동동 굴렀기 때문이다.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잘 모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가 겪었고 또한 겪는 것 그 이상을 대신 겪은 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괴로움, 외로움, 고통과 걱정을 전부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시다. 나를 만드시고 또한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나와 함께 동행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7-8절)라고 하셨다.

지금 내가 살아가며 당하고 있는 기쁨도 아시지만 어려움도 전부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정전이 된 인생에 성령이 불로 다시 켜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덩으로 주실 것을 믿는다.

## 교회소식

###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 2. 기도의 삶

####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기 위하여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열심히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미국과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교회 이전 계획이 잘 진행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Silk Wave 선교회: 선교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 4. 2021년 달력

새해 달력이 이제야 도착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가지면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가시고 교회를 알리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더 가지고 가서 선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5. 2월의 행사

재의 수요일 (사순절 시작) 2월 17일(수)

### 6. 주일예배 시 (방역)

- 1) 교회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2) 되도록 손으로 이곳저곳을 만지지 않습니다.
- 3) 서로 6 피트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합니다.
- 4)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음과 시간을 출석 종이에 적습니다.
- 5) 인사도 서로 거리를 두고 합니다.
- 6) 화장실은 예배당 옆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만을 사용합니다.
- 7) 찬양/찬송을 소리 내어 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찬양합니다.
- 8) 음식을 나누는 친교는 없으나 예배 전과 후에 대화는 가능합니다.
- 9) 하지만 예배 시 “아멘”은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 7.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http://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mailto:newchurchoregon@gmail.com)